



##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 <sup>1)</sup>

김형주 선임연구위원  
연보라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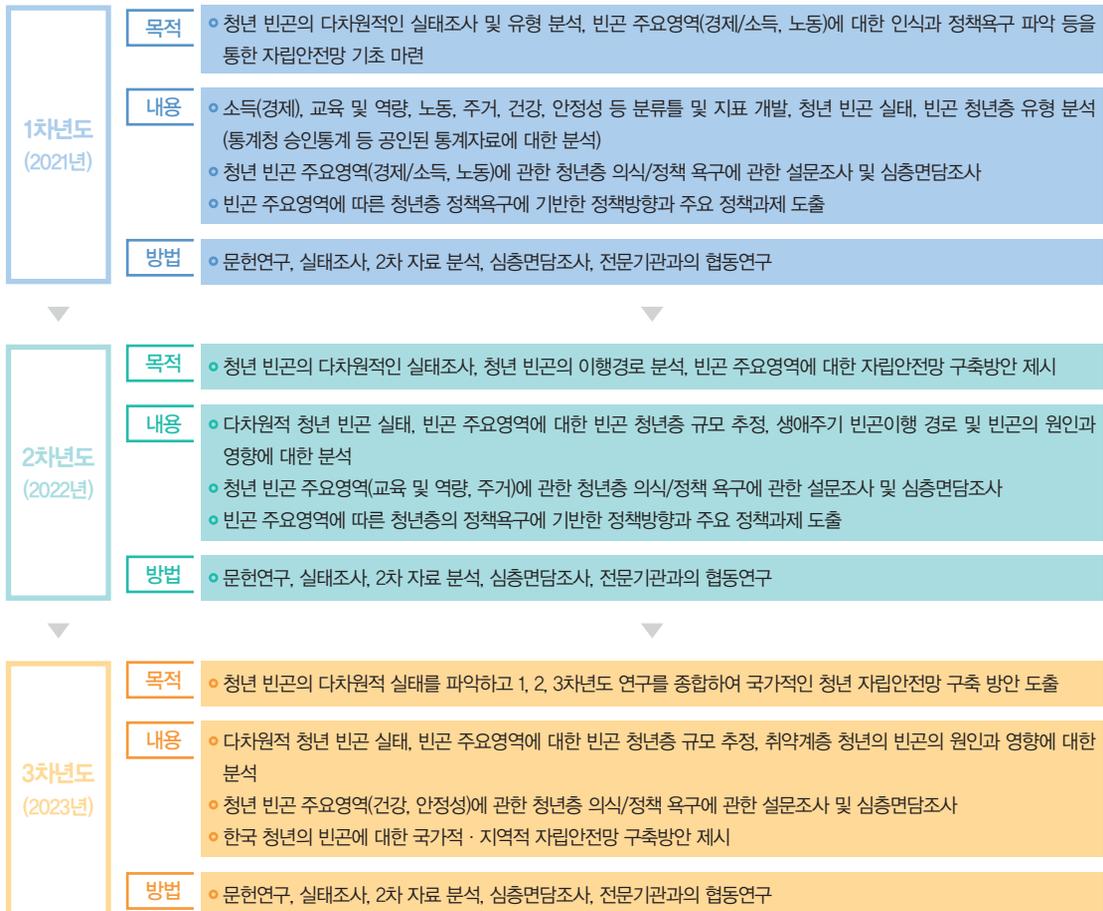
###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심층적인 실태와 영향요인을 3년간 연속연구를 통해 누적적으로 파악하고 청년 빈곤에 대한 예방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정책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임.
- 청년 빈곤의 개념을 '성인이 이행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과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기회가 박탈, 결핍된 상태'로 정의하였고, 청년 빈곤의 영역을 경제, 노동, 주거, 건강, 교육, 사회-문화자본으로 분류하였음.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 영역에서는 가처분소득과 순자산, 노동 영역에서는 실업과 노동안정성, 주거 영역에서는 주거비 부담과 최저주거기준, 건강 영역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및 중증질환과 의료비 부담, 교육 영역에서는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결핍과 니트(NEET), 사회-문화자본 영역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사회-문화 활동 시간을 빈곤 지표로 확정하였고 각 지표별 빈곤선(cut-off)을 설정하였음.
- 영역별 지표의 빈곤 추이를 분석한 결과, 청년의 이행기 변화는 청년의 사회적 과업과 직결되는 영역의 빈곤 위험을 크게 만들고 있었음. 청년은 노동과 주거, 그리고 교육영역에서 빈곤율이 높은 수준이었음. 이는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해 정착하는 것, 그리고 독립된 주거를 마련하는 청년의 이행기 사회적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청년이 자원과 기회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줌. 노동시장과 교육영역 밖에서 일할 기회, 역량을 키울 기회를 얻지 못하고 배제된 청년, 그리고 이행기의 불안정성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기 위한 안정적 공간으로서의 주거 자원이 결핍된 청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과거보다 최근의 청년은 경제영역 중 자산빈곤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음. 특히 청년의 순자산 빈곤율은 다른 연령집단보다 높았으며, 그 경향도 최근 더 강하게 나타났음.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산 대물림으로 인한 청년의 집단체 격차가 커지는 등의 청년 불평등 문제가 악화할 수 있음을 의미함.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불평등 수준을 완화하고, 청년의 집단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함
- 최근 청년은 빈곤연구에서 간과해온 비화폐적 영역인 건강과 사회-문화자본 영역의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을 확인하였음. 건강과 사회-문화자본은 청년의 이행기 사회적 과업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노동, 교육, 주거와 달리 청년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기초역량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영역의 빈곤 위험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청년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지지의 결핍은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활력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온 청년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소득지원만으로 청년 이행기의 배제, 박탈, 결핍을 완화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년의 관계와 연결망을 지원하여 코로나19 이후 청년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1) 본 블루노트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1년 연구과제인 '청년 빈곤 실태 및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김형주, 연보라, 정세정, 변금선, 이민정, 2021)을 발췌·요약한 것임.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청년기 빈곤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 빈곤 실태를 다층적으로 확인하고 빈곤경험 청년의 이질성을 고려해 청년 빈곤의 영역별로 빈곤상태에 놓인 청년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청년기 빈곤위험을 낮추기 위한 전략과 빈곤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심층적인 실태와 영향요인을 3년간 연속연구를 통해 누적적으로 파악하고 청년 빈곤에 대한 예방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정책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임.
- ▶ 1차년도는 연속연구 첫해로서 청년 빈곤의 분류를 및 지표 개발을 중심으로 지표별 실태 및 유형 분석, 경제/소득 및 노동 빈곤의 인식과 정책 욕구 파악 등을 통해 자립안전망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림 1]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 2. 연구내용 및 방법

### ▶ 연구내용

- 우선, 청년 빈곤 주요영역에 대한 선행연구, 정책 및 법제도에 대해 고찰하였음. 여기서는 청년 빈곤에 대해 사회적·정책적 개념화, 청년 빈곤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연구 등 선행연구 고찰, 청년 빈곤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정책 현황 분석, 청년 빈곤에 대한 국회 및 지방의회 최근 입법 현황 분석, 해외 주요국의 청년 빈곤 관련 정책추진 동향 분석 등을 하였음.
- 한국 청년의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인 실태를 분석하였음. 2021년 한국 청년의 빈곤 실태를 제시하기 위해 소득, 자산, 주거, 물질적 결핍 등 청년 빈곤에 대한 분류 틀, 핵심지표에 대해 통계청,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공식 통계를 기반으로 2차 자료를 중심으로 실태를 분석하였음. 또한 실태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청년층의 다차원 빈곤집단 유형을 분석하고, 청년 빈곤 실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1차년도 청년 빈곤 중점영역인 경제/소득과 노동에 대한 상황, 인식, 전망 및 정책 욕구에 대해 조사하였음. 즉, 청년 빈곤 분류틀에 따라 소득과 노동 영역에 대한 상황, 인식, 미래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 청년 빈곤 영역별 정책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조사, 청년 빈곤 관련 필요 정책에 대한 정책 욕구 조사, 청년 빈곤에 관한 인식 및 정책 욕구 조사결과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1차년도 청년 빈곤 중점영역인 경제/소득과 노동에 대한 청년층 심층면담조사를 하였음. 청년의 삶에 있어서 경제 및 소득, 노동 영역을 중심으로 빈곤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빈곤의 상태, 원인 및 경로, 그리고 빈곤위험성 등에 관한 청년 대상의 심층면담조사를 시행하였고, 심층면담조사결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마지막으로 정책방향 및 과제를 도출하였음. 실태 및 설문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 비전 및 전략 도출, 지립안전망의 기반 조성 및 추진체계 제시, 세부 정책과제 및 시행방안을 제시하였음.

### ▶ 연구방법

- 선행연구 분석
  - 청년 빈곤에 대한 개념화 동향 및 최근 선행연구 고찰, 청년 빈곤에 대한 정책 및 법제도 최근 현황 분석, 해외 주요국의 청년 빈곤 정책 동향을 분석하였음.
- 전문기관간 협동연구 추진
  - 1차년도에는 청년 분야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이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청년 빈곤 정책·법제도 분석과 청년 빈곤지표 분석 등을 공동연구하였음.
- 2차 자료 분석
  - 청년 빈곤의 분류틀 및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청년의 소득, 자산, 주거, 물질적 결핍 등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들을 대상으로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통계적 실태를 분석하였음. 또한 청년층에 대한 다차원적인 빈곤 집단 유형에 대해 분석하였음.
- 설문조사
  - 만 19세~34세(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법정 연령)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빈곤의 1차년도 중점영역(경제/소득, 노동)에 대한 상황, 인식, 전망, 정책 만족도, 정책욕구를 조사하였는데, 전국 17개 시도 대상 지역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표본 수 청년층 4,114명에 대해서 비례유층표본(proportional sampling) 추출로 온라인조사를 시행하였음.

- 심층면담조사
  - 청년 빈곤의 주요영역에 대한 청년층 삶의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한 것으로서 청년들의 일과 삶을 중심으로 빈곤의 상태와 빈곤에 이르게 된 경로, 위험성 예측을 위해 30명의 청년 대상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였음.
- 전문가 자문 및 정책포럼
  - 청년 빈곤 동향 및 원인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실시, 조사결과 및 정책현안에 대한 정책포럼을 개최하였음.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연구의 방향 및 정책적 수요 등에 대한 관련 부처 협의회 개최, 청년 빈곤에 대한 조사결과, 정책방안에 관한 부처 및 지자체 정책담당자와의 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3. 주요 연구결과

#### ▶ 청년 빈곤 지표 개발

- 청년들의 빈곤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단순히 경제적 소득만을 살펴보기 않고 청년들의 삶을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빈곤의 실태를 분석하였는데, 다음은 본 연구에서 청년 빈곤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개발한 청년 빈곤 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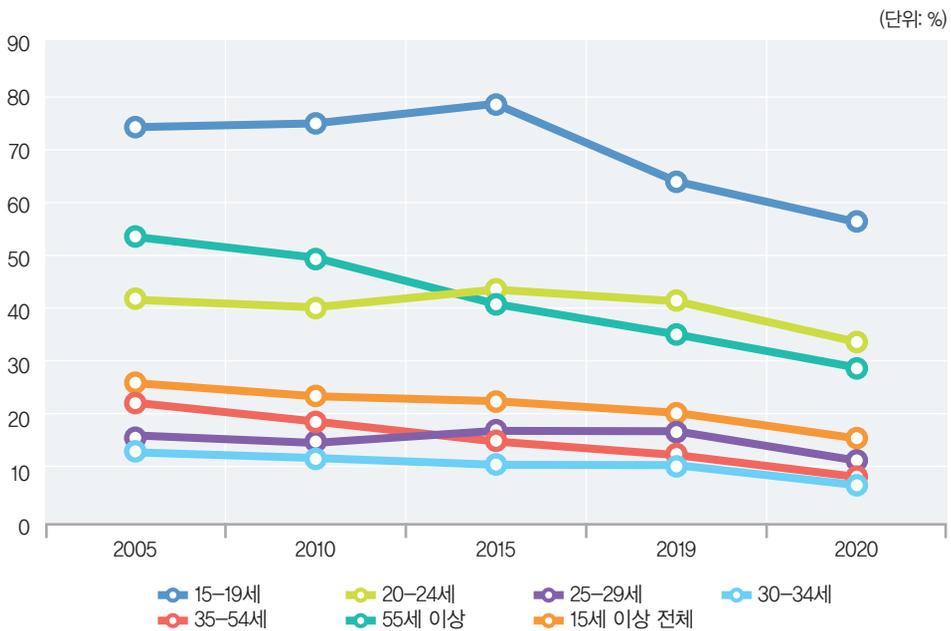
[표 1] 청년 빈곤 분류 영역 및 영역별 지표 개발안

분류 영역	영역별 지표	지표 설명
경제	가처분소득(가구/개인)	기본 생활에 필요한 소득의 결핍
	순자산(자산-채무)(가구)	기본 생활에 필요한 자산의 결핍
노동	실업	노동기회의 박탈
	노동안정성	노동안정성 결핍
주거	주거비 부담	주거비 과부담 위험
	최저 주거기준(주거형태, 주거환경 등)	최저 주거조건 결핍
건강	신체적/정신적 장애 및 중증질환	신체적/정신적 불건강
	의료비 부담	의료비 과부담 위험
교육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결핍(경제적/신체적 사유 등)	경제적/신체적 사유로 인한 교육 및 훈련 기회 결핍
	니트(NEET)(교육 및 훈련 미참여)	교육/일/훈련 등 배제
사회·문화자본	사회적 지지	사회자본의 결핍
	사회·문화활동 시간(재량시간)	사회·문화활동 기회 결핍

▶ 청년의 주요 빈곤 실태

• 저임금 근로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저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 중 임금이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경우) 비율은 15-19세가 5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20-24세 청년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34.4%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음. 25세-29세의 저임금근로 비율은 12.0%로 15세 이상 전체 저임금근로 비율(16.3%)보다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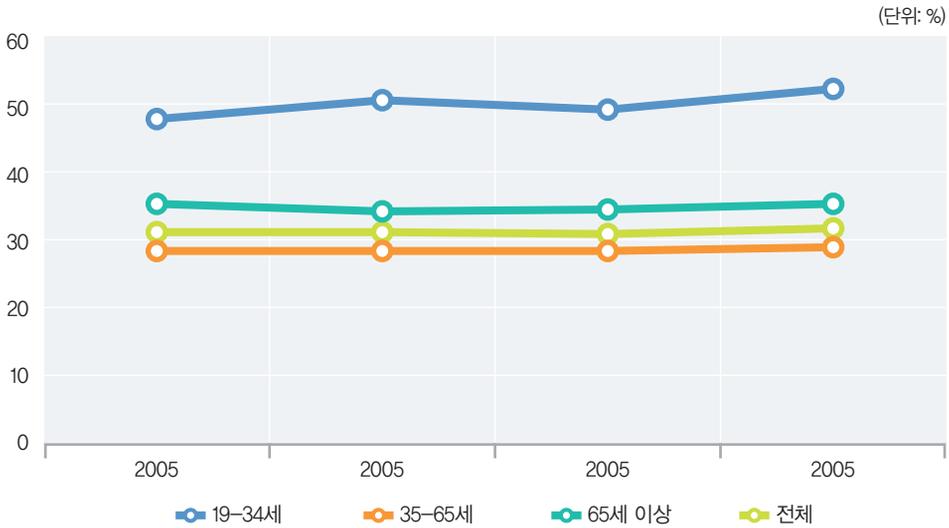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 8. 15. 인출).

[그림 2] 저임금근로자 비율(2005, 2010, 2015, 2019, 2020)

• 순자산 빈곤율

- 순자산 빈곤율은 가구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중위값의 50% 미만인 경우로 측정하였으며,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19-34세 청년가구주의 순자산 빈곤율은 51.5%로 전체 가구의 순자산 빈곤율 31.6%보다 19.9%p 높았으며, 가구주 연령집단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음. 변화 추이를 확인한 결과, 2017년 전체 가구주의 순자산 비율은 31.3%에서 2020년 31.6%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19-34세 청년가구주의 순자산 빈곤율은 47.6%에서 51.5%로 3.9%p 증가하였음. 이는 청년이 자산을 획득할 기회를 얻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음.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 8. 15. 인출).

[그림 3] 순자산 빈곤율(2017~2020)

• 청년 실업

- 실업은 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 이내에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 일할 기회가 박탈된 청년의 빈곤을 반영함. 2020년 기준 15-29세 청년의 실업률은 9.0%로 15세 이상 전체 연령의 실업률(4.0%)보다 두 배 이상 높았음. 변화 추이를 확인한 결과, 전체 집단의 실업률이 2010년 3.7%에서 2020년 4.0%로 소폭 증가하였는데, 15-29세 청년의 실업률은 7.9%에서 9.0%로 1.1%p 증가하였음. 학교를 졸업한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의 청년을 위한 신규일자리 감소와 노동시장 불안정성 증대로 인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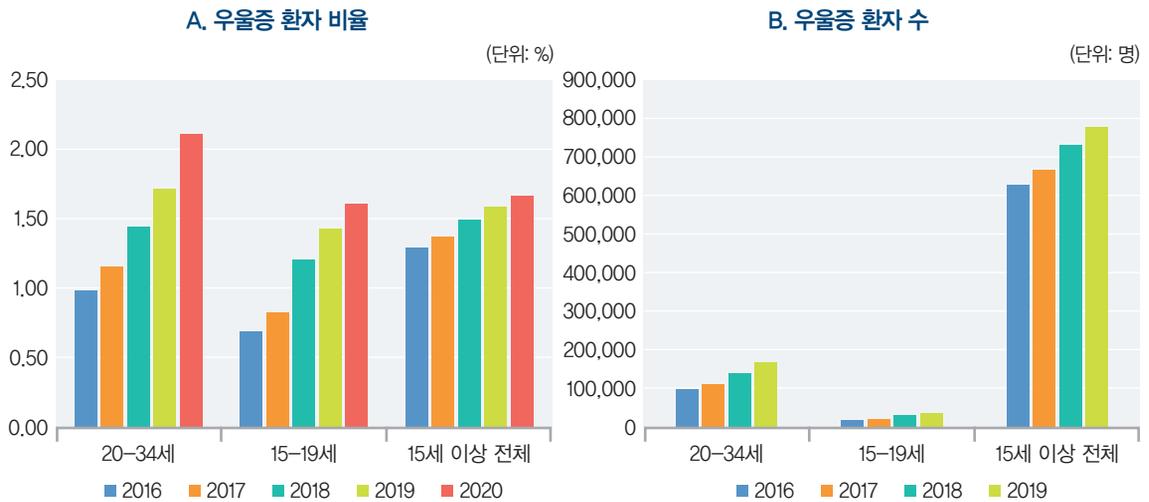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 8. 15. 인출).

[그림 4] 연령별 실업률(2010~2020)

• 우울증 발생

- 정신적 불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질병통계를 통해 연령별 우울증 환자 비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청년 중 우울증 환자 비율은 1.6%~2.1%로 15세 이상 인구 중 우울증 환자 비율(1.7%)보다 낮았음. 다만, 연도별 비교에 있어서는 20-34세 우울증 환자 비율은 2016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변화 추이를 보면, 우울증 환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였는데, 특히 청년의 증가율이 더 높았음. 이는 청년층의 정신건강 위험이 최근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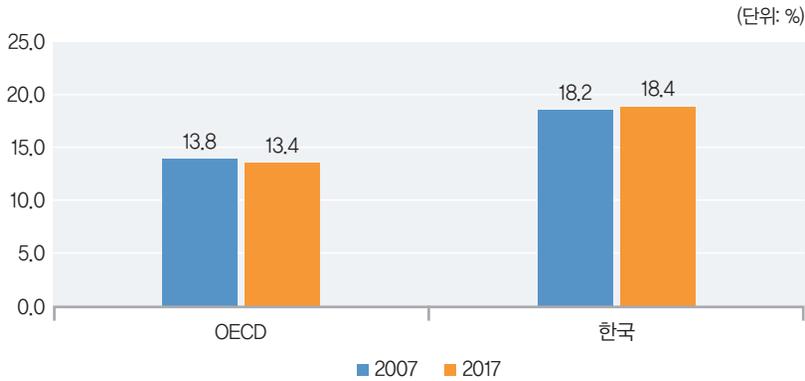


출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질병통계(관심질병통계)」 각 연도(<https://nhiss.nhis.or.kr/> 에서 2021. 8.15.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각 연도(<https://jumin.mois.go.kr/> 에서 2021. 8. 15. 인출)

[그림 5] 우울증 환자 비율 및 환자 수(2016~2020)

• 청년 니트

- 청년 니트는 만15-29세 청년 중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경우로 측정하였음. 2017년 우리나라의 니트 비율은 18.4%로 OECD 국가 평균(13.4%)보다 3.9%p 더 높았음. 이는 2007년 18.2%에서 미미하게 증가한 것인데, OECD 국가의 평균 니트 비율이 2007년 13.8%에서 2017년 13.4%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임.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구직 니트(실업자)보다 비구직 니트 비율이 높으며, 고학력 니트 비율 역시 높아 역량을 갖추고도 발휘하지 못하고 활력을 잃은 청년이 많다는 점에서 교육영역 빈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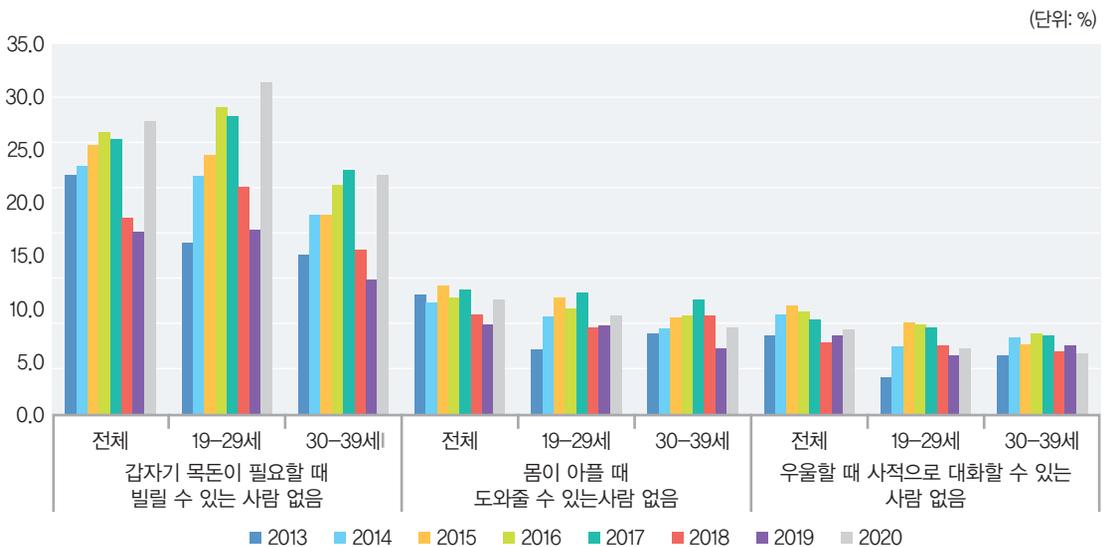


출처: 유기영, 나도삼, 김원호, 조달호, 송인주, 이석민, 김인희, 양재섭, 남원석, 김승연, 윤민석, 손창우, 반정화, 오은주, 주재욱, 최유진, 정상혁, 김승준, 안기정, 신성일, 유경상, 변금선, 김진하, 이준영, 신가희, 임현정, 홍상연, 한영준, 양재환, 김고은, 김호기, 윤서연, 이보경, 안누리, 오찬섭(2020)의 p.62 [그림 2-18] 발췌 (원자료 출처: OECD(2019), Society at a Glance 2019, (Figure 5.5.) More than one in seven young people are not employed nor in education or training 의 일부 내용 발췌).

[그림 6] 청년 니트 비율 변화

• 사회적 지지 결핍

- 사회적 지지의 결핍은 경제적 도움, 신체적 돌봄, 정신적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을 의미함. 2020년 19-29세 청년 중 ‘목돈이 필요할 때 빌릴 수 있는 사람 없음’ 비율은 31.3%였으며,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사람 없음’은 9.1%, ‘우울할 때 사적으로 대화할 사람이 없음’ 비율은 6.0%였음. 경제적 지지 결핍은 전체 비율(27.4%)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돌봄과 정신적 지지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음. 2013년부터 변화 추이를 보면, 경제적 지지의 결핍이 높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대표적 공적 소득보장제도인 기초보장제도 수급률과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청년이 경제적 지지 결핍률까지 높다는 것을 의미함. 이행기 청년이 경험하는 소득불안정 수준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사회보장체계 뿐만 아니라 사적지원망 역시 결핍되어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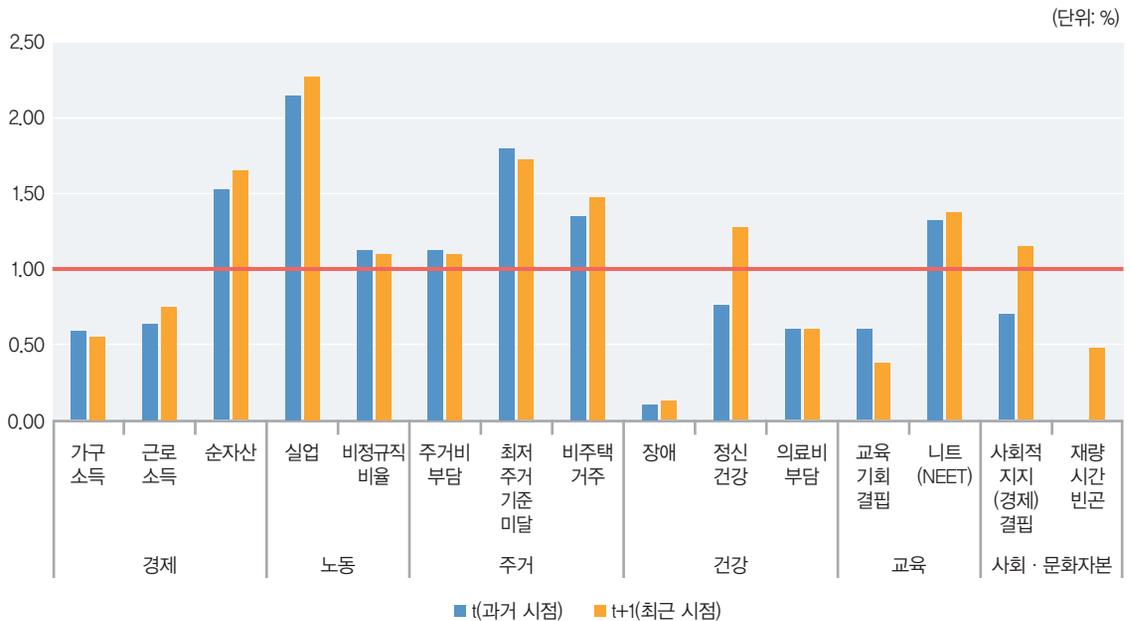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21. 8. 15. 인출).

[그림 7] 사회적 지지 결핍률 변화(2013-2019)

▶ 청년의 다차원 영역별 상대적 빈곤 위험

• 상대적 빈곤 위험

- 상대적 빈곤 위험(relative poverty risk)은 본 연구의 각 빈곤 지표에서 전체 연령의 값으로 해당 연령집단의 값을 나누어, 해당 집단이 전체 집단과 비교하여 빈곤율이 높거나 낮은지를 분석하였음(전체연령 값 1.00 기준). 상대적 빈곤 위험의 변화 추이를 확인한 결과, 모든 지표에서 상대적 빈곤 위험이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 영역은 건강이었으며, 그 외 모든 영역은 일부 지표의 상대적 빈곤 위험이 증가하였음. 상대적 빈곤 위험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표는 정신건강이었는데, 정신건강은 과거에는 전체 연령집단보다 빈곤율이 낮았지만(2015년 0.76), 2020년에는 1.26배로 증가하였음. 신체적으로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불안정성 증대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청년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사회적 지지 결핍도 상대적 빈곤 위험이 증가하였는데, 2013년에는 전체 연령보다 결핍률이 낮았으나, 2020년에는 전체 연령보다 결핍률이 더 높게 변화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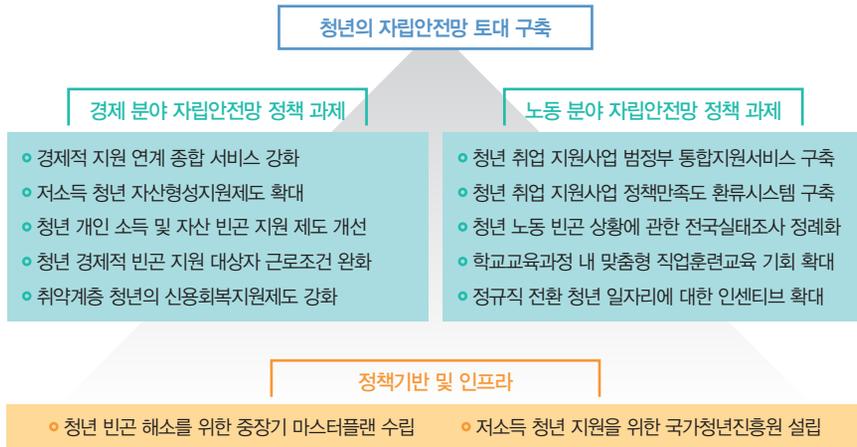


출처: 본 보고서 p.143의 영역별 상대적 빈곤 위험 변화 통계표(표 III-30)를 이용하여 도식화함.

[그림 8] 영역별 상대적 빈곤 위험

## 4. 정책제언

- ▶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청년의 자립안전망 체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제언으로서 경제와 노동이라는 2개 분야 총 12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그림 9] 정책 비전 및 분야

### ▶ 경제 분야의 자립안전망 정책 과제

- 경제적 지원 연계 종합 서비스 강화
  - 소득빈곤과 자산빈곤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다면적인 종합 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공급자 중심의 단일 서비스 제공이 아닌 수혜자 중심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의 전환이 요구됨. 청년 다차원 빈곤의 유형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제적 영역을 중심으로 노동, 주거, 교육, 건강, 사회·문화 영역의 지원을 결합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함.
-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확대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존 수급자와 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하였으나, 최근 기준중위 100%이하의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에게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차상위 이상 청년층의 자산형성지원제도로써 도입된 ‘청년 희망적금’의 저축장려금은 2년간 매달 15,000원에 불과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청년 개인 소득·자산 빈곤 지원 제도 개선
  - 빈곤 가구의 가구원, 자녀라는 인식을 넘어 독립된 개인으로서 경제적 빈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현행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해서도 청년들의 특수한 이행기 특성을 반영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차적으로 청년 개인 중심으로 소득과 자산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정책적 배제 집단에 대한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고, 모든 청년을 위한 지원으로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청년 경제적 빈곤 지원 대상자 근로조건 완화

-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증대와 함께 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 빈곤을 해소하는 기존의 정책적 기조는 유지하되, 현재의 불안정한 노동 상황과 개인의 근로의지와 상관없이 일자리 기회를 갖지 못한 청년들이 정책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현재 연소득 600만원인 가입조건 하한선을 두고 있는데, 하한선에 대한 가입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청년들의 불안정한 근로상황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음. 아울러 기존 자산형성제도의 중도해지 조건에서도 일시적 휴직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이행기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취약계층 청년의 신용회복지원제도 강화를 통한 채무 부담 완화

- 대학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 등 생존을 위한 청년들의 불가피한 채무가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통해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우선적으로는 학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 청년들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국공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함.

#### ▶ 노동 분야의 자립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 청년 취업 지원사업 접근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통합지원서비스 구축

- 각 부처가 시행하는 청년 취업 지원사업 중 청년들에 대한 직접사업을 중심으로 각 사업에 대한 추진절차 및 접근방법 등을 우선 파악해야 함. 이를 기반으로 각 사업 담당 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청년취업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전체 취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과정재설계(BPR)를 할 필요가 있음.

- 청년 취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만족도 환류시스템 구축

- 우리나라 청년 취업 상황의 타개를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의 청년 취업 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함. 각 사업 참여자들의 정책만족도에 대한 조사항목을 현실화하고 각 만족도 결과를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피드백하는 환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 개선에 활용하는 것을 제안함.

- 청년 노동 빈곤 상황에 관한 전국실태조사 정례화

- 청년의 노동 빈곤 상황과 관련하여 근로조건 of 열악성과 개선 가능성, 노동을 통한 생활의 유지와 개선, 노동이 삶의 질, 자아실현,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폭넓게 파악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노동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것임. 따라서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 빈곤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차별로 실시하고, 연간 노동 현실을 제시함과 더불어 시계열 데이터로 축적하여 사회·경제적 개선 상황에 대한 추세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을 제안함.

- 노동 빈곤 해소를 위한 학교교육과정 내 맞춤형 직업훈련교육 기회 확대

- 청년의 일반적인 삶의 경로를 살펴보면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개인의 적성과 상황, 욕구에 부합하는 직업훈련교육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필요함. 따라서 졸업 이전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산업연계 직업훈련과정을 정식 이수과정으로 편성하여 사회 진출 이전에 개인에게 맞춤형 직업훈련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임.

- 정규직 전환 청년 일자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우리 사회의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청년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다른 연령대 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의 격차 심화, 안정적 고용환경에 대한 욕구 확대 등 청년들의 기본적인 인식을 고려할 때 정규직 확대뿐만 아니라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하는 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본정책으로 하여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 자립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기반 및 인프라

-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 국무조정실에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보다 시급한 빈곤 문제에 대해서도 청년빈곤정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각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하게 하고 실제 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구체화하여 제시함으로써 빈곤 타개를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음.
- 저소득 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청년진흥원 설립
  - 정부조직 상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없다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관련 정책의 확대가 쉽지 않고 각 부처 사업에서 우선순위에 밀릴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이 사실임. 따라서 청년정책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기청 국가청년진흥원을 정부출연기관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참고문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질병통계(관심질병통계)」 각 연도. <https://nhiss.nhis.or.kr/> 에서 2021. 8.15. 인출.

김형주, 연보라, 정세정, 변금선, 이민정 (202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1.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기영, 나도삼, 김원호, 조달호, 송인주, 이석민, 김인희, 양재섭, 남원석, 김승연, 윤민석, 손창우,반정화,오은주, 주재욱, 최유진, 정상희, 김승준, 안기정, 신성일, 유경상, 변금선, 김진하, 이준영, 신가희, 임현정, 홍상연, 한영준, 양재환, 김고운, 김호기, 윤서연, 이보경, 안누리, 오찬섭 (2020). **서울의 미래 시정과제**. 서울: 서울연구원, 미간행.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년 8월 15일 인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년 8월 15일 인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년 8월 15일 인출.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년 8월 15일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각 연도. <https://jumin.mois.go.kr/> 에서 2021. 8. 15. 인출.

OECD (2019). *Society at a Glance 2019: OECD Social Indicators*, Paris: OECD.